



혁명정책을 계승함으로써 작년 초 3선 개헌에 실패한 오바산조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야라두아 후보가 신장과 관련된 건강악화 소문으로 집권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실질적인 군통수권 행사는 오바산조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오바산조가 퇴임 후 부정부패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야라두아 후보라는 분석도 오바산조 대통령의 야라두아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 부통령과 전직 군 고위관료였던 부하리(Muhammadu Buhari)가 치열하게 대선 후보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결과를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또한, 지난 2003년 4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1999년에 이어 현 여당인 인민민주당(PDP) 정부가 대통령, 국회 상·하의원, 주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번 대선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먼저 여당인 인민민주당이 압도적인 권력, 정치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여당 후보인 야라두아를 대선에서 당선시킬 가능성은 높으나, 야당이 지난 몇 년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감안할 때 여당의 국회 및 주지사 선거의 압승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한해도 니제르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시설 테러 빈발로 생산차질이 심했던 나이지리아가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과 함께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종족, 종교간 분쟁의 골이 깊어진 정치적 혼란 가운데 유사 분쟁 발생 우려 등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VI. 2007년도 필리핀 경제전망

1. 국내경제

가. 경제 동향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대선부정 의혹 및 가족들의 뇌물수수 조사 등 불안정한 정국

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필리핀 경제는 양호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악화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5.0% 성장에 머물렀으나, 2006년에는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활성화와 농산물 작황



<표 V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e	2007 ^f
경제성장률	4.4	4.9	6.2	5.0	5.6	5.5
재정수지/GDP	-5.4	-4.6	-3.8	-2.7	-1.1	-0.5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5	6.0	7.6	6.3	4.4

자료: IFS, EIU.

호조, 소비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5.6%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경제는 2007 년에도 2006 년과 비슷한 수준인 5.5%의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해외근로자로부터의 해외이전소득에 근거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높은 이자율과 사회간접시설 미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인한 투자위축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은 부실한 조세제도와 세수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07 년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 8월 의회에 제출된 2007 년도 재정운용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지출 감소와 자본지출 증가이다.

즉, 이자율 하락과 달러대비 환율 하락²⁾으로 국채에 지급되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본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 이상의 양호한 경제성장과 부가가치세율 2%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2007 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0.5%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유가 현상과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으로 2006년 초반까지 7%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농산물 작황 호조에 따른 식료품비 인하, 폐소화 강세에 따른 수입품 가격안정, 유가안정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5.4%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2007년에도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0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단기 기준금리를

2) 국채 이자율은 2006년 8% 수준에서 2007년 6%까지 하락하고, 달러대비 환율은 2006년 55~56Peso 에서 2007년 51~53Peso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7.5%로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경우 투자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프라 확충 계획

아로요 대통령은 2006년 7월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가발전전략계획의 일환으로 필리핀 인프라 확충 종합계획안을 의욕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근래 들어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정부의 이자부담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계획안은 아래와 같이 지역을 새로이 분류한 대권역(Mega-regions)별로 집중 투자분야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1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① North Luzon : 도로복구, 공항개발,

San Roque 다목적댐 확장, 소규모 관개시설 프로젝트 등

- ② Metro Luzon : Subic-Clark-Tarlac 고속도로와 남북 Luzon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연결사업, 통근철도서비스 연결, 철도 및 항만 건설 등

- ③ 중부지역 : 공항 건설 및 확장, 도로건설 및 항만확장 등

- ④ 민다나오 : 도로건설 및 Lanao del Norte와 Misamis Occidental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등

- ⑤ Cyber Corridor : 과학 및 기술 투자 등

2. 대외거래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에는 상품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유가와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2005년에 비해 크게

<표 VI-2>

주요 대외거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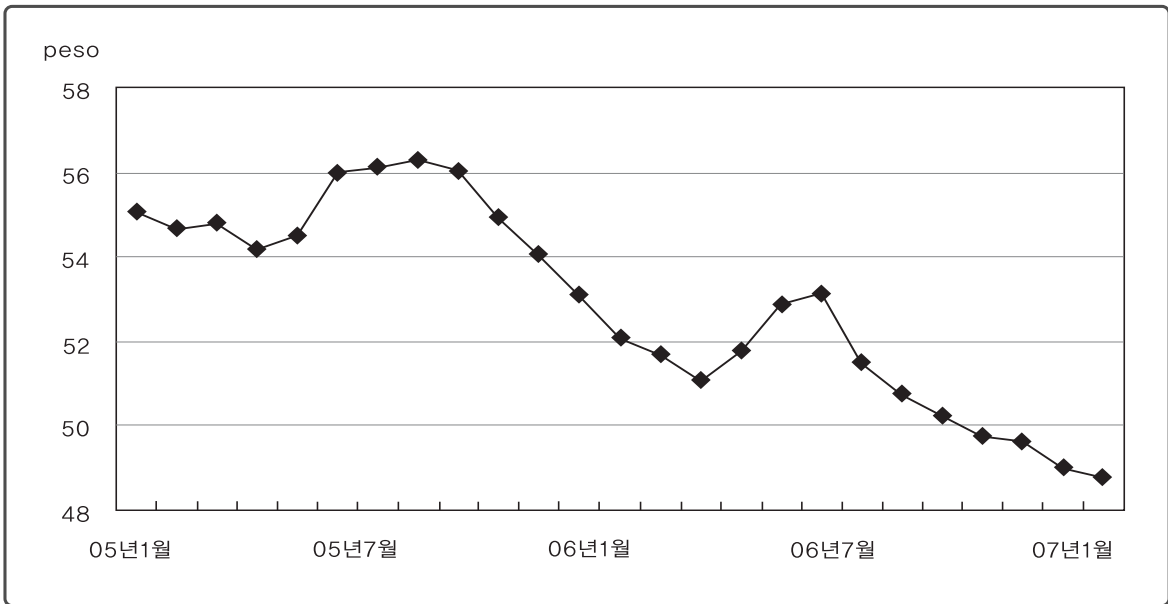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e	2007 ^f
경 상 수 지	-279	288	1,633	2,338	4,993	5,200
(경상수지/GDP)	(-0.4)	(0.4)	(1.9)	(2.4)	(4.3)	(4.0)
상 품 수 지	-5,530	-5,851	-5,684	-7,546	-6,303	-7,200
수 출	34,403	35,339	38,794	40,231	44,673	46,000
수 입	39,933	41,190	44,478	47,777	50,976	53,200
외 환 보 유 액	13,329	13,655	13,116	15,926	19,885	-

자료: IFS, EU.



<그림 VI-1> 달러대비 페소화 환율 추이^{주)}



주: 각 해당월 말일 기준. 단, 2007년 1월의 경우 1월 17일자 환율임.

자료: Bloomberg.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전자제품 수출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여 2006년 보다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이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를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가 보전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들어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과 맞물려 필리핀 페소화의 달러환율도 꾸준히 평가 절상되었다. 2007년에도 재정적자

부담이 완화되고 수출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페소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사회적 불안이 촉발될 경우 통화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의 외채총액은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외채상환 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GDP 또는 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DSR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단기에 대외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VI-3>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f
총 외 채 잔 액	59,900	62,500	60,600	60,800	61,200	63,400
총외채잔액/GDP	78.0	78.5	69.8	61.8	52.6	48.5
총외채잔액/수출	114	118	104	98	90	89
D. S. R.	19.3	19.3	19.9	14.5	14.4	14.6

자료: EIU viewswire.

3. 외국인직접투자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으로 2002년 15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국인직접투자가 2003년 5억 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법제도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장수준이나 이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 유입이 여타 ASEAN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상실인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의 정정불안과 재정위기 발생 우려, 중국과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 등이 외국인 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6년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는 주로 외국 기업간 또는

외국기업과 자회사간의 자금이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07년에도 신규투자가 급속히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필리핀 경제가 2007년에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필리핀 경제구조는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 해외 거주 노동자 송금에 대한 의존성 및 수출구조의 취약성 등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필리핀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002년 -5.3%를 차지할 정도로 다소

<표 VI-4>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f
금 액	15	5	7	11	20	20
G D P 비 중	2.0	0.6	0.8	1.2	1.7	1.5

자료: EIU viewswire.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세수기반 부족과 각종 조세징수 체계의 미비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2002년 이후 아로요 정권의 지속적인 재정수지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비록 느리긴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2006년 동 비율은 -1.1%까지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0.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지연 등에 기인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적자를 해외거주 노동자의 송금으로 보전한 결과이다. 2005년까지 매년 송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증가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국가경제가 과도하게 의존하는 점이 필리핀 경제구조의 안정성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기준으로 총 상품수출(402억 달러)에서 전자제품 수출(27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이 한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전자제품시장이 위축될 경우 필리핀 수출이 일시에 급격히 위축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총 수출의 약 35%가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수출구조 취약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Ⅷ. 터키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 하락세 예상

2001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이후, 터키 경제성장률은 2002~05년 중 연평균 7.5%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3/4 분기에는 성장률이 3.4% 수준으로 급속히 하락하여 2002년 4/4분기 이후 최저수준의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리라화 가치 급락,

민간소비성장률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 지속 및 고금리로 인한 국내수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6년 5~6월 중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자동차 및 여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GDP의 70%)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의 7.4%에서 5.2%로 하락하였으며, 2007년에는 4.5%로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